

# 박물관신간



## 연구와 전시

인디언이 없는 인디언 이야기  
제주, 네 번째 초대의를 문을 열다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모이다

## K-뮤지엄

국외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유산, 그 원형을 찾다

## 사람과 이야기

강변에서 삼킨 노래, 국립진주박물관  
한국의 젊음과 북미 원주민이 박물관에서 만나면?  
손창근 선생님, 편히 쉬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04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10

<어느 수집가의 초대> 고 이진희 회장 기증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



20

국립진주박물관으로 떠나는 여행



28

국립중앙박물관 × 쿠도스

## 연구와 전시

04 전시

인디언이 없는 인디언 이야기

10 전시

제주, 네 번째 초대의 문을 열다

14 국제교류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모이다

18 학술

박물관이 이루는 훌륭한 성과의 바탕에는 연구가 있다

## 사람과 이야기

20 박물관 여행

강변에서 삼킨 노래, 국립진주박물관

24 잠시 멈춤

박물관의 산뜻한 여름 온도

26 교육

동심이 펼쳐낸 문화유산

28 인터뷰

한국의 젊음과 북미 원주민이 박물관에서 만나면?

30 K-뮤지엄

국외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유산, 그 원형을 찾다

32 추모

손창근 선생님, 편히 쉬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34 주요 소식

36 국립박물관 주요 전시 일정

38 박물관문화향연

올여름은 박물관에서 시원하게 보내세요!

39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창간일 1970년 7월 1일

발행일 2024년 7월 1일

발행인 윤성웅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

www.museum.go.kr

편집인 김원길

편집위원 곽홍인 류정한 배진희 이민수 이수경

이진민 이현주 전인지 최환 허형욱

기획·편집 김미소 명성은 이태연

제호 최순우

디자인 큐라인

사진 박재홍 안호성

영상 플러스메이커스

인쇄 (주)태광피엔디

문의 02-2077-9575

ISSN 1226-038X

THE MUSEUM NEWS VOL. 635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해당 자료 소장자에게  
있습니다. 외부 필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 국립중앙박물관

본 간행물은 FSC 인증을 받은 종이와  
공기를 잉크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바로가기



지난 2년 동안 덴버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이번 특별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북미 원주민의 문화와 예술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시이다. '인디언'하면 서부 영화에서 머리를 독수리 깃털로 장식한 추장의 모습이나 캠핑장의 티피 텐트, 혹은 스낵의 이름이나 주인공이 독수리 머리 장식을 하고 나타나는 영화 <기생충>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기도 한다. 이런 이미지는 북미 원주민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 인디언이 없는 인디언 이야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2024.6.18.~10.9.

## 단편적 이미지에 가려졌던 풍부한 문화와 역사

이번 특별전은 우리가 알던 인디언을 다루지만 인디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인디언이라는 용어는 1492년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을 인도로 착각한 데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오래 전부터 그 땅에 살아왔던 사람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북미 원주민'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인디언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독수리 깃털 머리 장식'처럼 매우 단편적이다. 그러나 북쪽 알래스카에서 남쪽 뉴멕시코에 이르는 광활한 북미 대륙에는 570여 개의 부족이 있고 부족 수만큼이나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기후와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다. 그들을 둘러싼 자연환경은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고 경계를 짓게 하여 다채로운 언어와 풍속을 지니게 하였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북미 원주민의 다양한 문화와 세계관을 보여주는 전시품 151점을 만나볼 수 있다. 우리가 인디언으로 불렀던 이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 사라진 이들이 아니라, 깊이 있고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음을 조명했다.







머리 장식Headdress  
네즈퍼스Nez Percé족, 1860~1890년대

전시는 관람객에게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은 누구인 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다. 광활한 북미 대륙에 살고 있는 570여 개의 부족을 하나의 단일체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들을 편견 없이 다시 바라보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풍성한 내용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또한 한국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 전시를 마친 이후에는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순회전을 개최한다.

### ‘미타쿠에 오야신’ 세계관을 구현한 전시

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구성했다. 1부는 ‘하늘과 땅에 감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북미 원주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소개한다. 1부의 시작은 북미 원주민에게 자연이 갖는 의미가 담긴, 얼굴만 내놓을 수 있는 아기 요람이다. 원주민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아이들에게 자연은 가장 큰 선생님이다. 갓난아기 때부터 자연을 바라보며 주변 세계를 관찰하고 자연의 기운을 눈, 코, 입으로 느낄 수 있길 바란 것이다. 이어 집, 옷과 그릇, 의식 도구와 그림 등 30여 개 부족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북미 원주민들에게 일상과 예술, 종교는 경계가 없기에 일상용품은 예술품이었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물건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수리 깃털 머리 장식은 존경의 상징이다. 공동체 구성원에게 넓은 관대함을 보이거나 전투에서 용감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착용했다.

북미 원주민들은 지역마다 부족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같았다. 둥그런 원을 이루고 있는 세상 속 모든 존재의 ‘관계’와 ‘연결’을 중요시한다. 너와 나의 관계, 조상과의 관계, 미래 세대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초자연적 존재와의 관계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조화롭게, 균형 있게,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했다.

북미 대평원 원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나누는 인사 ‘미타쿠에 오야신’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특별전에서는 이러한 자연과의 교감·조화와 균형의 가치관이 그들이 만든 집과 옷, 일상용품과 의식뿐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지는 말 속에 담겨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대평원 부족의 집인 티피(tipi, teepee) 역시 여러 개를 배치할 때 전체적으로 둥그런 모양을 갖추도록 했다. 티피의 둥근 바닥은 대지를 의미하고 가운데 세운 기둥은 땅과 하늘을 이어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 고정관념의 역사, 문화정체성 회복의 서사

2부는 ‘또 다른 세상과 마주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북미 원주민이 갈등과 위기를 넘어 이어온 힘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2부의 시작은 유럽 사람들이 북미 대륙으로 건너와 정착한 이후 달라진 원주민의 삶을 다룬 회화와 사진 작품들이다. 유럽 이주민들과 첫 만남은 낯설었지만 대체로 평화로웠다. 그러나 머지않아 서로 다른 세계관의 충돌로 오래도록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등 원주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전시는 이주민의 시선에서 본 북미



암사로가족 어머니와 아이Mother and child  
암사로Apsálooke족의 E. S. 커티스, 1908년

날이 밝으면 태양이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를  
밤이 되면 달이 당신을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기를  
비가 당신의 근심걱정을 모두 씻어 주기를  
산들바람이 당신의 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당신이 이 세상을 사뿐사뿐 걸어갈 수 있기를  
당신이 살아 있는 동안 내내 그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기를  
- 아파치 족의 기도



크리켓Crickett  
체메우에비Chemehuevi족의 카라 로메로Cara Romero(1977- ), 2014년



티피 Tipi  
미네콘주 라코타Minneconjou Lakóta족의 스탠딩 베어Standing Bear(1859~1934)로 추정, 1880년경



## 북미 원주민을 만나는 다채로운 방법들

이번 전시를 함께, 재밋게, 새롭게,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관람 포인트를 소개한다.

첫째, 전시 공간의 디자인 콘셉트는 북미 원주민의 원형 세계관에서 착안했다. 북미 원주민은 세상이 둥근 원처럼 서로 둥그랗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과거·현재·미래와 같은 시간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세상을 떠난 이도 우리와 함께한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는 원주민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원이었다.

원에서 영감을 받은 전시장은 탁 트인 원형의 공간 안에서 둥그런 동선을 따라 사람들이 ‘함께’ 관람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또한 전시품을 감상하며 북미 원주민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가수 양희은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북미 원주민의 시선은 경쟁과 갈등 속을 살아가느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전시실에 머무는 동안 잠시나마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충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전시장의 모든 설명은 쉬운 글쓰기를 지향했다. 또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어린이박물관과 협업하여 촉각 체험, 어린이용 설명, 모바일 코너를 곳곳에 마련하였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맞추며 ‘놀이하듯 재밋게’ 북미 원주민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셋째, 우리가 알던 인디언을 ‘새롭게’ 다시 알아가는 여정으로 정신세계부터 일상·예술·문화·역사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자연과 교감하며 사는 놀랍도록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들의 가치관을 전시장 곳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깊이 있게’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지식해적단과 협업하여 영상을 제작했다. ‘대륙횡단철도와 들소’를 주제로 북미 원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전시 기간에는 강연 등 여러 행사를 펼친다. 개막 직후인 6월 19일에는 북미 원주민 출신의 덴버박물관 학예연구사인 다코타 호스카의 강연회가 있었다. 6월 28일에는 북미 원주민의 문학, 종교, 영화 등을 들려줄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중 강연회를 열었는데, 7월 26일에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8월 20일에는 한국미국사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를 찾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북미 원주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각각의 전시품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직접 만나보길 바란다. 낯설고 오래된 문화가 아닌 현재 우리 곁의 문화로 한층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이 될 것이다.

글. 김혁중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사

# 감사와 우정을 담아 북미 원주민의 지혜를 전합니다

## 미국 덴버박물관

## 크리스토프 하인리히 관장



**Q 덴버박물관은 북미 원주민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소장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집 배경이 궁금합니다.**

**A** 1893년 개관한 덴버박물관은 100년 전부터 소장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적 탁월함을 중심으로 최고로 아름다운 예술품을 수집하는 데 주력하며 양과 규모를 점점 확장했죠. 북미 원주민들의 예술품은 저희가 선보인 거의 최초의 컬렉션입니다. 고대 원주민들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작품은 물론이고 원주민 혈통의 현대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들도 많이 수집했습니다. 또한 20여 년 전부터 북미 원주민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 자문위원회도 만들었고요. 전시품에 대한 각별한 추억과 전시품을 실생활에서 활용한 경험이 있는 북미 원주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용하여 컬렉션과 전시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재해석을 가미한 이번 전시품들은 덴버박물관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의미가 큼니다. 한국의 관람객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전시가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Q 미국에서 북미 원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에 덴버박물관이 기여했다고 보시나요?**

**A** 부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북미 원주민들의 예술품을 수집하고 전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북미 ‘인디언’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부수고 싶었습니다. 박물관의 핵심 역할은 ‘사회적 편견을 깨는 것’이니까요. 박물관장이자 교육자, 또 큐레이터로서 스스로 먼저 생각을 바꿔나가고,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박물관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네요.**

**A** 조금 덧붙이자면 박물관은 사회적 메시지를 수집하고 이를 ‘전시’라는 채널로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잠시 빌린 전시품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박물관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더 나아가 오래전부터 전시품을 수집해 온 분들의 어깨 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노력을 이어 나가고 또 후세에게 우리의 어깨를 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치 북미 원주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또한 과거에는 하나의 정설처럼 여겨지던 하나의

목소리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양 남자인 저의 시각은 이번 전시의 전시품들을 직접 사용한 원주민들의 시각과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고 또 학자이자 큐레이터인 다코타 씨의 시각과도 다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Q 문화의 다양성을 확장된 메시지로 전달하는 문화 매개자로서 이번 전시가 한국의 관람객에게 어떻게 다가가길 바라시나요?**

**A** 먼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북미 원주민의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을 훌륭하게 맥락화해 주셨어요. 관람객이 북미 원주민과 강한 연결고리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전시에 깊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초반부터 북미 원주민과 자연의 관계, 또 그들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을 대했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서방 국가에는 ‘자연은 이용해 마땅한 것’이라는 관점이 있지만, 북미 원주민은 자연과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환경오염이나 탄소발자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미 원주민의 자연에 관한 관점은 시사하는 것이 많습다. 전시장에 적힌 ‘지금의 이 땅은 후대로부터 우리가 빌린 것이다’라는 문구처럼요. 자연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 누려 마땅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잠깐 빌려서 보존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관람객들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Q 앞으로 덴버박물관이 소개 예정인 한국 문화유산 전시 소식도 전해주세요.**

**A** 덴버박물관은 약 2,500㎡ 규모의 아시아 컬렉션 전시 공간을 갖추고, 아시아의 많은 문화와 종교를 구현해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현정 큐레이터와 함께 한국 미술품 컬렉션을 일본·중국 규모로 끌어올리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내년에는 달항아리를 주제로 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시 중인 분청사기가 비교적 작고 섬세한 예술품이라면, 달항아리는 좀 더 크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 또한 더 널리 알려질 수 있겠지요. 이와 함께 국보급 문화유산, 그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작품들도 선보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편집팀





국립제주박물관

# 제주, 네 번째 초대의를 문을 열다

〈어느 수집가의 초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  
2024.6.4~8.18.

지난 2021년 4월 28일, 언론은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증 소식을 ‘세기의 기증’이라는 제목으로 타전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문화유산 21,693점,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근현대 미술품 1,488점과 광주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박수근미술관, 이종섭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에 나누어 기증한 근현대 미술품 102점은 양과 질 모두 ‘한 세기에 두 번 있기 어려운’ 기증임이 틀림없었다.

## ‘세기의 기증’으로부터

세간이 기증 이야기로 들썩이기 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은 조용하면서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2만 1천 점이 넘는 기증품 목록을 조율하고, 수장고에 공간을 마련하고, 기증품을 운송하고 등록하는 모든 과정에 수많은 박물관 직원이 땀을 흘렸다. 그해 7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은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열었고 이듬해 4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공동 개최했다. 선사 시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우리의 문화적 유전자를 한자리에 펼쳐보려는 시도는 ‘어느 수집가의 기증’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과 제주의 인연

〈어느 수집가의 초대〉 전시 기획은 지역의 국립박물관 순회 특별전으로 이어졌다. 국립제주박물관과 이건희 기증품의 인연은 순회전에 앞선 2022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화산석으로 깎아낸 제주 동자석과 문인석 55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관하여 ‘동자석 정원’을 꾸린 것이다. 이는 이건희 기증품을 국립박물관 상설 전시에 활용한 첫 사례였다. 제주의 자연과 사람이 함께 낳은 동자석을 제주의 품에 보내고 싶어 했던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뜻과도 통했다. 그리고 2024년, 〈어느 수집가의 초대〉는 제주에서 새로운 막을 올렸다. 전시품 360여 점은 무진동 차량을 타고 남쪽으로 420km를 여행한 뒤 뱃길 100km를 건너 이곳 제주에 무사히 도착했다. 제주의 붉가시나무로 짠 반단이 〈제주궤〉<sup>도1</sup>, 현존 최고<sup>最古</sup>의 제주 간행 도서인 『황석공소서』와 같은 제주의 문화유산들이 고향을 다시 찾았다.

## 환대와 몰입, 그리고 온 마음

우리는 모두 수집가이다. 물건을 모으지 않더라도 애착 가는 물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다.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는 그래서 수집품의 진열에 그치지 않는다. 물건을 만들고, 쓰고, 아낀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전시는 수집품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 3부로 구성했다.

제1부 ‘수집가의 환대’는 수집가가 반기는 첫 공간이다. 올레를 연상시키는 낮은 돌담으로 들어서면 조출한 소반이 관람객을 반긴다. 마주 앉아 차 한 잔, 쉼다리 한 사발을 나누는 환대의 자리에는 제주 녹나무와 들꽃 향기가 은은하게 번진다. 소반 곁의 영상 ‘동자석 정원의 하루’로 박물관 야외의 빛과 소리를 들여놓았다. 고 이건희 회장 기증 제주 동자석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전시실을 나선 뒤 정원을 산책하도록 배려한 장치이다. 건너편에 전시된



도1.  
제주궤  
조선 19세기  
나무에 철·쇠  
높이 72.0cm,  
폭 82.0x44.0cm  
이건희 기증  
전회 4556



(위) 제1부 ‘수집가의 환대’ (아래) 제2부 ‘수집가의 몰입’





도2.  
분청사기 조화 모란무늬 항아리  
조선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  
높이 47.8cm, 입지름 16.2cm,  
최대 폭 31.0cm  
이건희 기증  
전회 895



도3.  
백자청화 동정추월무늬 병  
조선 18세기  
높이 32.5cm, 입지름 17.6cm,  
최대 폭 25.1cm  
보물  
이건희 기증  
전회 60

〈산수, 꽃, 새와 짐승〉병풍에 그려진 백록담과 사슴은 여기가 바로 제주라고 넌지시 말해준다. 찻상에서 일어나면 방으로 들어선다. 이곳에 벽 가득한 진열장이 잘 정돈되어 있다. 〈책가도〉 병풍에서 옛사람의 수집 열망을 느끼고, 그 옆의 진열장에서 수집가의 넓은 취향을 맞볼 수 있다. 이어지는 사랑방에는 소담한 목가구가 반긴다. 열린 창에 비쳐 드는 달빛은 은은하게 한라산을 드러내고, 그 앞 〈달항아리〉에 내려앉는다.

제2부 ‘수집가의 몰입’은 수집가가 몰입했던 서화와 도자기 명품을 만나는 곳이다. 시간과 공간을 잊은 채 수집품에 온전히 몰두했던 사람의 눈길을 따라가 보자. 제주에 없는 짐승을 그린 〈월하송림 호족도〉 병풍이 눈을 사로잡고 화조화와 산수화, 초상화는 물론 여름 더위를 식혀줄 부채 그림도 전시실에 가득하다. 건너편에서는 고 이건희 회장 일가가 특히 사랑했던 도자기를 눈으로 쓰다듬어 볼 수 있다. 대법한 〈분청사기 조화 모란무늬 항아리〉와 티 없는 〈백자청화 동정추월무늬 병〉은 왜 그리 다르면서도 한 가지로 고운지.<sup>도2,3</sup> 몰입의 경험은 정선의 〈인왕제색도〉, 김홍도의 〈추성부도〉에서 절정에 이른다.

제3부 ‘수집가의 성심’은 물건에 담긴 깊은 마음에 젖는 경험이다. ‘성심(誠心)’은 온 마음이다. 나와 남의 담장을 허물 때 느끼게 되는 마음이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비로소 깨닫는 이치이다. 초기 철기 시대 사람의 두려움을 떨쳐주었던 〈청동 방울〉, 고려인들이 거란을 물리치려는 한마음으로 새기고 적어낸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 세상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원한 〈천수관음보살도〉를

수집한 수집가의 성심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진다. 김정희가 인장을 찍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국왕경응조무구정답원기》 모사첩은 90년 시간을 넘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범종의 장엄한 울림이 소리와 빛으로 퍼져나가고, 코끝에 스치는 백단향이 마음에 다다른다. 이렇게 환대에서 몰입으로, 그리고 성심에 이르는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에서 커지는 기증의 가치

2021년 4월의 기증으로부터 3년이 꼬박 흘렀다. 이 특별한 시간 동안 기증의 가치는 무럭무럭 커졌다. 서울과 지방 세 곳의 순회전을 찾은 관람객들은 문화에서 즐거움과 삶의 힘을 얻는 경험을 했다. 국립박물관의 여러 연구자가 힘을 모은 학술 성과는 분야별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에 담겼고, 기증품 고화질 사진은 누구나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에서 찾아보고 내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증으로부터 3년째에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열리는 〈어느 수집가의 초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은 그래서 새롭고 특별하다. 우리 문화의 정수가 담긴 기증의 씨앗은 3년의 세월 동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곳 국립제주박물관을 찾아 전시를 완성해 주시기를 바란다.

글. 이재호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전시 예고

# 三國三色

## Lacquerware of East Asia

### 동아시아의 칠기

2024년 한·일·중  
국립박물관 공동 특별전  
Joint Special Exhibition of National Museums,  
Korea, Japan and China, 2024.



2024. 7. 10. Wed — 9. 22. Sun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국립중앙박물관 東京国立博物館 中国国家博物馆



#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모이다

2024년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



국립중앙박물관은 2012년부터 국외박물관의 한국 프로그램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 (이하 펠로우십)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펠로우십은 5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 10박 11일에 걸쳐서 진행했다.

## 현장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다

국외박물관에서 한국 및 아시아 관련 업무를 맡은 전문가들에게 국립중앙박물관의 펠로우십은 흔치 않은 실무교육 기회다. 한국 문화유산의 관리·연구·전시·교육의 본령에서 공유, 교류, 체험으로 짙은 일정을 소화하며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펠로우십에는 미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에 소개한 박물관에서 5명의 전문가가 최종 참가자로 선발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들 참가자의 공통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 올해는 특히 '실무교류'를 강화했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여러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문가들이 실무 현장을 직접 안내하며 관련 사업의 취지와 의미, 고민과 성과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먼저 미술부에서는 양수미 학예연구사가 불교조각실·회화실 및 사유의 방을, 서유리 학예연구사가 청자실을, 임진아 학예연구사가 분청사기·백자실을 안내했다. 고고역사부에서는 임혜경 학예연구사가 고려실로, 그리고 김진실 학예연구사가 조선실로 참가자들을 이끌었다. 전시를 함께 관람하며 전시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상세히 설명했고, 소장품의 특징과 시대상 등 풍성한 배경지식을 공유했다. 담당자들은 실무자로서 겪은 여러 경험과 고민, 연구 현황 등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아니면 얻기 힘든 심도 깊은 정보도 가감 없이 나누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보존과학부 이승은 학예연구사의 안내로 재질별 보존처리실을 방문하여 시설을 살펴보고, 각 담당자에게 보존처리 중인 소장품과 보존처리 절차 등을 배울 수 있었다. 이렇듯 국립중앙박물관의 전문가들이 현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프로그램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한 까닭은 국적과 소속을

초월한 동료 의식 때문일 것이다. 한국 문화유산이라는 공통 분모를 지닌 참가자들이 각자의 박물관에서 관련 전시를 기획하거나 연구를 계획할 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동료애라고 해도 좋겠다.

## 교류하고 지원하며 함께 나아가다

한국 문화유산의 실무 현장에서 이뤄진 교육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교육문화교류단에서는 전시과, 교육과, 어린이박물관과의 협조로 또 다른 실무교류를 진행했다.

전시과에서는 양승미 학예연구사가 주요 국제교류 전시 사례 및 향후 계획을 소개했고, 신소연 학예연구관은 국외박물관 한국 실 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소속 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교류 방안,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 자리의 열기는 전시과 수장고 방문으로 이어졌다. 수장고의 역할, 유물 반출입 절차,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원칙 등을 확인하는 시간은 향후 더욱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도 요긴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장은정 교육과장이 먼저 박물관 교육의 개념부터 교육과의 구성과 역할, 주요 사업과 방향성,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비전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공·감·각 전시 학습 공간 '오감'으로 참가자들을 안내했다.

어린이박물관과에서는 이영신 학예연구사와 정민영 학예연구사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소개하고 주요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공유했다. 어린이박물관에서의 현장 체험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말 그대로 즐거운 '체험' 위주로 구성된 다양한 공간들, 어린이 관람객을 배려한 마음보듬소와 같은 시설을 둘러보았다. 참가자들은 '오감'부터 '마음보듬소'까지 다양한 관람객에게 맞춘 동선과 프로그램에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러한 시도와 노력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평했다.

##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다

참가자들이 현업 현장에서 겪는 세세한 고민을 꼭 짚어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각각의 고민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여기서도 국립중앙박물관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활약해 주었다. 불교미술, 도자, 공예 등의 소장품 관리, 전시, 교육, 디지털 실감 콘텐츠와 같은 분야에서 총 14건의 개별 컨설팅이 이뤄졌다.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브레인스토밍부터 특정 소장품의 보존처리 절차에 대한 조언, 소장품 기원에 관한 자문까지 구체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오고간 자리였다. 컨설팅으로 인연을 맺은 국립중앙박물관 전문가들과 참가자들은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연락처를 교환하며, 지속해서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 2024년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 참가자

- 정설 Sel JUNG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보조 큐레이터  
라우라 줄리아노 Laura GIULIANO 이탈리아 문명박물관 큐레이터  
민리 푸 Min Li FOO 싱가포르 국립유산위원회 설립자기념관 부관장  
로런 반스 Lauren BARNES 영국 더럼대학교 동양박물관 큐레이터  
그웬들린 애덤스 Gwendolyn ADAMS 캐나다 로열온타리오박물관 선임 소장품 전문가





## 더 넓은 이해와 다양한 소통 방식을 모색하다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전국을 누비며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국외박물관 중사자들로서는 펠로우십이 아니면 좀처럼 얻기 힘든 기회일 것이기에 되도록 촘촘하게 일정을 조율했다. 답사행보는 공주, 서울, 진주, 다시 서울, 경기로 이어졌다.

먼저 5월 30일 오전에는 충남 공주 마곡사 성보박물관 배영일 관장의 안내로 마곡사 전각을 둘러보며 한국 불교와 마곡사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 사찰 불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점심 식사는 공양으로 진행해 한국 사찰 문화의 일부를 맛볼 수 있었다. 오후에는 국립공주박물관 최성에 학예연구실장과 김명훈 학예연구사의 안내로 상설전시를 관람하며 전시의 구성과 주요 소장품, 백제 문화 및 예술과 무령왕릉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 또한 충청권역 수장고를 방문하여 수장고형 전시를 관람하고, 수장고 내부까지 들어가 시설을 살펴보며 운영 현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주 답사는 국립공주박물관의 학예연구사들이 마련해준 차담회로 마무리되었다. 덕분에 참가자들은 우리 문화유산의 운치를 음미하며 이날 여정을 마칠 수 있었다.

5월 31일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의 해설을 들으며 상설전시실을 관람하고 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장과 면담했다. 참가자들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다른 민속학적 측면에서의 접근법과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대의 소장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는 점을 흥미로워했다.

6월 1일에는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조선의 갑옷과 무기를 중심으로 임진왜란 관련 전시를 살펴보았다. 6월 2일에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과 천주교순교자박물관을 방문하여 한국 종교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틀간의 행보에서 참가자들은 관련 소장품을 활용한 전시 아이디어를 부지런히 수집하는 모습이었다.

6월 4일에는 한국 도자사를 탐방하기 위해 경기도 답사에 나섰다. 참가자들의 소속 박물관이 소장한 대표적인 한국 문화유산이 바로 도자이다. 이를 고려해 특별히 기획한 견학이었다. 먼저 경기도자박물관의 협조로 용인 서리 고려 백자 요지 현장을 답사하고 경기도자박물관을 방문하여 한국 도자사 전반과 고고학 발굴 조사의 성과와 현황을 알아보았다. 경기도자미술관에서는 한국 도자의 오늘을 살펴보았다. 이날 마지막 방문지는 현대 도예가 이능호 작가의 스튜디오였다.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와 대화를 나누며, 현장 견학의 대미를 장식했다.

올해 펠로우십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교류 기회를 확대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고고학, 미술사, 전시, 교육, 소장품 관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더욱 폭넓고 다양한 관점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펠로우십에서 경험한 것들 덕분에 소속기관에 적용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글. 김슬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국제교류 전문경력관

# 2024년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 참가자 인터뷰

**Q** 펠로우십을 마친 소감이 어떨까요?

**A** 정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촉각 전시, 문화유산과 디지털의 상호작용 등을 보고 ‘역동적인 전시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영감을 받았습니

**그웬돌린 애덤스** 공·감·각 전시 학습 공간 ‘오감’이 인상 깊었어요. ‘반가사유상’ 두 점을 촉각 전시로 구현한 방식이 눈길을 끌었죠. 시각 장애인이 촉각 전시물을 만지고, 냄새를 맡는 등 여러 관점에서 소장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좋았어요.

**로런 반스** 박물관에서 역사적 문화유산과 관람객을 연결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식, 특정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 그리고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경험한 것들이 박물관 업무는 물론 제 개인 연구까지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민 리 푸** 저 역시 ‘모두를 위한 박물관’이라는 박물관 교육 접근법과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한 전시 공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서 대적 맥락을 제공하는 방식도 인상 깊었고요.

**라우라 줄리아노** 다양한 미디어아트와 어린이·장애인을 위한 전시를 보며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중이 읽기에 적합한 전시장 설명 문구도 마음에 들었고요. 무엇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연구사 분들께 한국 불교 예술, 도자, 미디어아트 활용에 관해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Q** 국립중앙박물관과 인연은 처음인가요?

**A** 로런 반스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의 아시아 부문 큐레이터였을 때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실 지원 사업으로 소장품 보존처리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어요. 조선시대 족자 6점의 상태를 개선하고 추가 연구를 진행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우수한 관리와 지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영국 더럼대학교 동양박물관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박물관 내 한국 소장품 전시가 지속되고, 두 박물관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민 리 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몇 분과 회의차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국립중앙박물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 박물관의 역량 강화와 지속을 위해 다양한 우수 사례를 교류하고 싶습니다.

**라우라 줄리아노** 이번에 맺은 첫 인연을 계기로, 이탈리아 문명박물관 내 한국 예술 및 전시실 디자인에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미디어아트와 교육 분야, 다중 감각 공간 조성에 관해 자문을 얻고 싶네요.

**Q** 펠로우십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라우라 줄리아노 몇 달 전 이탈리아 문명박물관의 한국 소장품 큐레이터가 되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로런 반스** 저 역시 최근 영국 더럼대학교 동양박물관에서 한국 소장품 큐레이터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 물질문화 수집의 역사를 탐색하는 박사 과정 중이라 여러 전문가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펠로우십 이전 참가자의 강력한 추천도 있었고요.

**민 리 푸** 펠로우십 참가자들을 포함한 박물관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업무에 관한 시야를 넓히고, 관람객에게 소장품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시할 방법을 찾고자 참여했는데요.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박물관 교육 지식을 확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운영 방식을 알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웬돌린 애덤스** 저도 다양한 기관의 학예연구직과 소통할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 보존 및 관리 담당자들과 교류하며 큰 도움을 받았습니

**정설** 아시아 미술에 있어 간문화적 서사, 그중에서도 일본 미술에 끼친 한국 미술의 문화적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펠로우십에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분들의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뿌듯합니다.

**Q** 펠로우십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A** 정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관람하며 어린 세대를 포용하는 전시 디자인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웬돌린 애덤스** 현재 캐나다 로열온타리오박

물관 박물관 접근성 개선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공·감·각 전시 학습 공간 ‘오감’ 전시에서 관람객과 소통을 확대하는 전략을 배울 수 있었어요. **라우라 줄리아노**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은 두 불상이 만들어진 의미를 다시 얻는 공간이자, 사람들을 명상과 치유로 인도하는 공간입니다. 관람객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여러 시도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관람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감·각 전시 학습 공간 ‘오감’에서 재탄생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로런 반스** 영국 더럼대학교 동양박물관은 조선시대 백자 도편 소장품을 연구할 계획인데요. 도자 전문 박물관과 예술가의 작업실에서 도자기 조각 전시 방식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용인 서리 고려 백자 요지에서 고고학적 발굴 현황과 성과를 배울 수 있



었고, 고려 백자가 만들어진 장소를 경험해 뜻깊었습니다.

**민 리 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문화유산과 디지털이 조화롭게 전시되어 있으며, 디지털을 통해 문화유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느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관람객 경험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전시에 있어 관람객을 놀라게 하는 요소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Q** 역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A** 정설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는 현대 예술가에게 다양한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펠로우십을 통한 스미소니언 전체 기관의 전시 방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겠지만, 우리 사례에서 참고할 점이 있을 듯합니다.

**라우라 줄리아노** 이탈리아 문명박물관은 ‘탈식민화’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여러 아티스트,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국립중앙박물관에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제 지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로런 반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무릇 박물관이라고 하면 관람객의 관심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 더럼대학교 동양박물관 역시 현지 커뮤니티 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민 리 푸** 전시장 내부에 노인 관람객을 위한 좌석이나 사석 및 사유 공간이 조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펠로우십에서의 경험을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A** 정설 새롭게 인연을 맺은 분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싶어요.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처럼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요소를 전시에 포함하려 합니다.

**라우라 줄리아노** 한국 불교 예술과 도자에 관해 배운 내용을 제 개인 연구는 물론, 이탈리아 문명박물관 내 아시아 소장품 조사 연구 업무에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그웬돌린 애덤스** 한국의 역사와 현대, 동시대 예술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고, 다양한 유형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방식에서 영감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박물관 전문

가들과 맺은 소중한 인연으로 제 역량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아 설렙니다.

**로런 반스** 더럼대학교 동양박물관에서 한국실 개편 및 특별전시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한국 물질문화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펠로우십에서 배우고 발전시킨 아이디어들이 영국에 있는 제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 리 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모두를 위한 박물관’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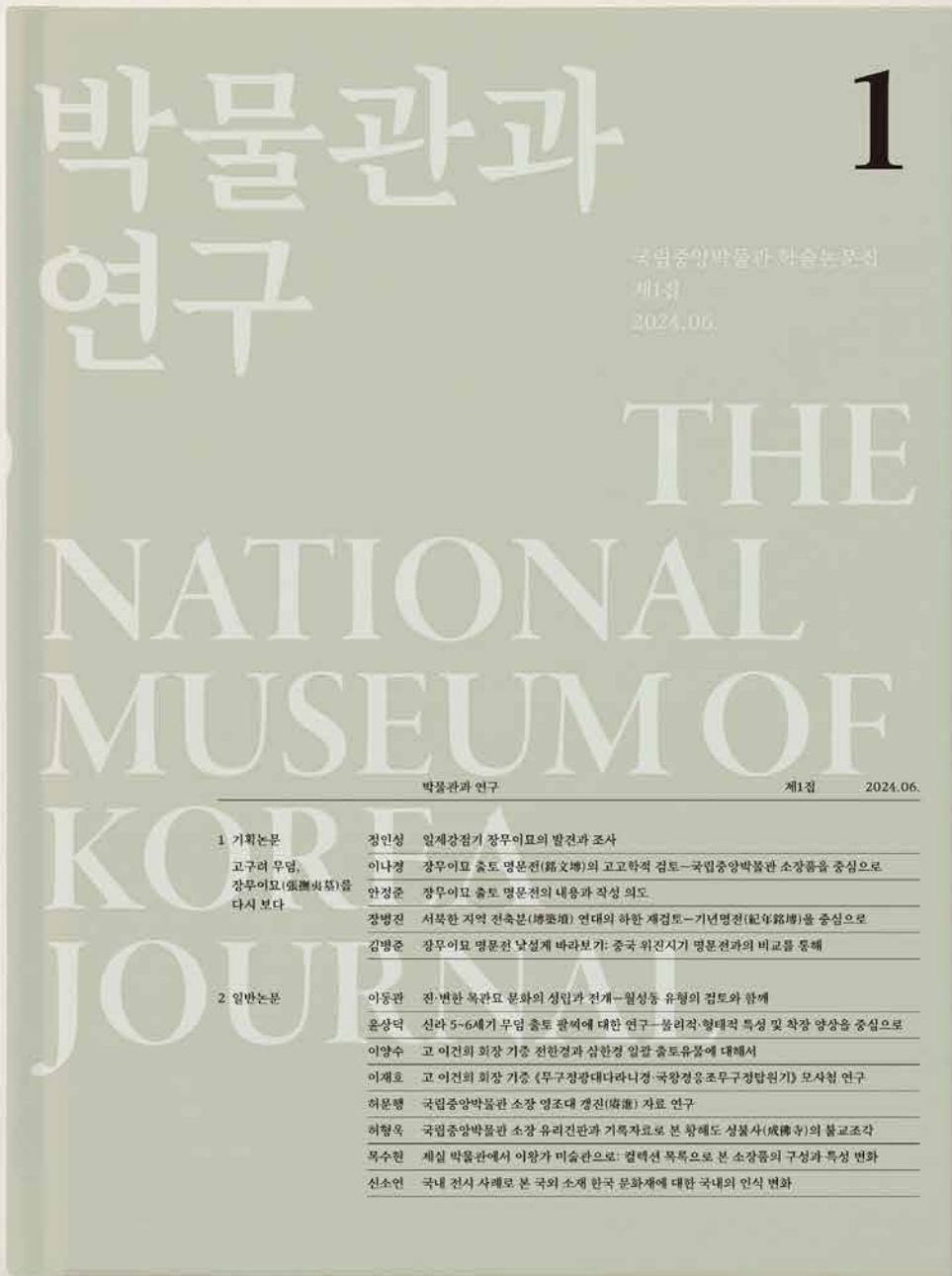
다. 관련해서 배운 것들을 제가 일하는 싱가포르 국가유산위원회 설립자기념관의 전시와 교육 분야에도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정리. 편집팀



# 박물관이 이루는 훌륭한 성과의 바탕에는 연구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술논문집 『박물관과 연구』 창간호 발간



국립중앙박물관은 정기 학술논문집 『박물관과 연구』 창간호를 지난 6월 발간하였다. 『박물관과 연구』는 기존에 발간하던 『美術資料』, 『考古學誌』, 『박물관 교육』을 통합하고, 연구 주제와 영역을 박물관 전 분야로 확장한 새로운 학술논문집이다(관련 기사 『박물관신문』 제632호-2024년 4월호 참고). 창간호에는 기획논문 5편과 일반논문 8편, 총 13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번 창간호의 기획논문은 “고구려 무덤, 장무이묘(張撫夷墓)를 다시 보다”라는 주제로, 고고학 및 역사학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 성과 5편을 수록하였다. 황해도 봉산 군에 위치한 장무이묘는 1911년에 발견되었으며, ‘대방 태수 장무이(使君帶方太守 張撫夷搏)’ 명문전이 출토되면서 대방군 연구의 핵심적인 무덤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3년에 고고학 및 역사학 연구자들과 함께 장무이묘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제4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번 창간호에는 이를 한 단계 진전시킨 성과를 기획논문으로 실었다. 일제강점기 장무이묘의 발견과 조사를 필두로 명문전의 고고학적 검토와 내용, 작성 의도, 중국 위진시기 명문전과의 비교 분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장무이묘가 지닌 가치와 의의를 탐색했다.

일반논문은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박물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 8편을 수록하였다. 특히 박물관 소장품과 전시를 주제로 한 논문이 수록되어 앞으로 박물관학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고 이진희 회장 기증품을 새롭게 연구한 성과가 주목된다. 전한 명대경 22점과 삼한경 1점으로 구성된 일괄품의 출토지를 경상북도 지역으로 추정한 논문은 박물관에서 기증품 목록집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이다. 또한 이진희 회장 기증《무

구정광대다라니경·국왕경웅조무구정답원기》모사첩 연구에서는 기존에 아유카이 후사노신 소장품으로서 사진으로만 알려졌던 모사첩의 존재를 실제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고학 분야에서는 본격적으로 철기가 공반되는 군집 목관묘의 출현을 유형화하여 제시한 논문과 물리적 성질과 형태, 착장 양상을 분석하여 신라 5~6세기 무덤 출토 팔찌를 연구한 논문이 수록되었다. 역사학과 미술사학 분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영조대 갱진(廣進) 자료와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찍힌 황해도 성불사 불교 조각에 대한 연구 논문도 게재되었다. 박물관학 분야에서는 국외 소재 한국 문화유산의 국내 전시와 관련된 인식 변화를 연구한 논문과 이왕가박물관의 소장품 변동을 통해 박물관 성격이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음을 밝힌 논문이 실렸다.

창간호에 실린 논문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학술행사·출판 → 정기간행물 → 간행물 검색’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술논문집 『박물관과 연구』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발간된다. 새롭게 출발하는 『박물관과 연구』가 박물관학 분야 연구의 활성화와 연구 수준 향상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글. 강경남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학예연구관



3



강변에서  
삼킨 노래

진주 땅이 행정의 중심지로 떠오른 것은 통일신라 때, 크게 아홉으로 나뉜 전국 행정 구역 가운데 한 곳으로 지목되어 청사를 세우면서부터다. 이후 임진왜란과 농민 항쟁 등 굵직한 사건을 거치면서 불의에 맞선 뜨거운 중심이 아로새겨진 역사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경상도의 큰 고을, 진주로 떠났다.

# 남강



산청 법학리 삼층석탑  
통일신라시대  
높이 480cm  
국보  
진수 18243

1 진주성  
도보 5분 500m



2 축석루

도보 15분 1km



도기 바퀴장식 빨간가야  
가야  
보물  
진주 1



천자총통  
조선시대  
보물  
본관 6526



3 호국사

도보 5분 500m

4 국립진주박물관



# 거리

##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는 역사 진주성

함양군에서 발원한 작은 물길은 소백산지와 진양호를 지나며 잔잔하지만, 웅장한 물길이 되어 마침내 진주에 닿는다. 거기서부터 남강이다.

진주성 앞을 휘감아 흐르는 남강은 오늘날 푸르고 아름다운 경관과 멋진 야경으로 더없이 훌륭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하지만 430여 년 전, 진주 목사 김시민과 7만에 이르는 민관군이 순절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이 가지는 숭고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아는 이들의 발걸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10월, 왜군

3만여 명에 맞서 싸운 김시민 장군과 3,800여 명의 군사들이 이뤄낸 승리의 기록이 바로 진주대첩이다. 그러나 이듬해, 9만여 명을 이끌고 재침한 왜군에 맞서다 민관군 7만의 피가 성 전체에 뿌려졌다. 처절하게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이지만, 이 또한 '천 년 역사에 길이 남을 진주의 의로움'이 되새겨지던 순간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의 규모는 지금의 약 3배 정도 큰 규모였다고 하니 성을 오르려는 왜군과 막으려는 조선 백성들의 사투가 얼마나 치열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북쪽에 계시는 임금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공경의 뜻을 표한다는 의미를 가진 '공북문 拱北門'이 진주성의 실질적인 정문이다. 성에 들어서면 시원하게 펼쳐진 나무와 잔디들이 눈에 들어온다. 굴곡진 역사의 흔적을 간직했지만, 진주성은 여전히 푸르르다.

##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축석루

축석루 矗石樓는 진주 8경 중에서도 제1경으로 꼽히는, 진주의 상징이자 영남 제일의 누각이다. 진주성 남쪽 석벽 위에 높이 솟은 자태가 기품 있다. 축석루 아래, 유유히 흐르는 남강이 더 깊이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논개의 절개가 서려 빛나기 때문이다.

축석루 누각 현판에 새겨진 '축' 자는 곧을 '직' 자 세 개가 합쳐져 이루어진 한자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름조차 이곳의 역사와 필연적으로 닿아있는 듯, 논개의 충절을 예견이라도 한 듯하다. 논개는 왜의 재침으로 성이 함락되자 축석루 아래 바위로 적장을 유인해 강물에 몸을 던졌다. 목숨을 담보로 한 서럽도록 단단한 절개다. 이후 논개가 투신한 바위는



진주성





(위) 국립진주박물관 야외 석조문화재 전시장과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  
(아래) 국립진주박물관 임진왜란실



축석루



호국사

📍 **진주성**  
주소: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  
운영시간: 09:00~18:00(연중무휴)  
입장료: 성인 2천 원, 청소년 1천 원,  
어린이 6백 원

📍 **축석루**  
주소: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  
운영시간: 09:00~18:00(연중무휴)  
\*진주성 입장권 구매 시, 관람 가능

📍 **호국사**  
주소: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71  
운영시간: 09:00~18:00(연중무휴)  
\*진주성 입장권 구매 시, 관람 가능

📍 **국립진주박물관**  
주소: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35  
운영시간: 09:00~18:00(매주 월요일 휴무)  
홈페이지: jinju.museum.go.kr  
\*진주성 입장권 구매 시, 관람 가능

‘의암(義巖)’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의리를 세운 바위라는 뜻이다.

전쟁 때는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 본부였고, 평소에는 풍류를 즐기던 명소였으며 한때는 과거를 치르는 고사장으로 쓰이며 제 역할에 충실했던 축석루. 1241년에 창건된 유서 깊은 누각으로 지난 800년 동안 여러 차례 중건과 보수를 거쳤지만 특유의 고고한 자태만은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남강을 향해 굳건히 서 있다.

### 바위 앞 푸른 대는 이제야 봄이라 호국사

진주의 문화유산에는 단순한 유적을 뛰어넘는 삶과 풍류가 깃들어 있다. 옛 전투의 상흔이 서린 진주성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펼쳐진 남강의 산책로와 대나무숲 곳곳의 전망대는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다. 성문 어느 곳으로 들어가도 보이는 고즈넉한 산책로도 매력을 더한다.

진주성 내에 있는 호국사는 고려시대에 창건되어 본래 ‘내성사(內城寺)’라 불렸다. 고려 말기에 왜구를 막기 위해 진주성을 고쳐 쌓고, 승병을 기르기 위해 창건된 이 절은 임진왜란 때는 승군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1593년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수많은 승병이 마지막까지 분투하다가 성이 함락되면서 함께 전사했다. 전란 후 목숨을 바친 승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속중에 이르러 ‘호국사(護國寺)’란 이름으로 재건되었다. 호국사 대웅전 기둥에는 7언 6행으로 구성된 주련이 남겨져 있다.

‘흰옷으로 관세음보살,  
아무 말씀 없으시니  
남으로 떠나는 동자는 듣지도 못했네.  
병풍엔 푸른 버들 삼복더위 여름인데  
바위 앞에 푸른 대는 이제야 봄이라.  
(하략)’

진주의 명찰이자 불자들의 성지로 알려진 호국사. 그러나 아름다리 자라는 거목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풍경만으로도 진주 여행에서 빼놓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곳이다. 대웅전 처마 밑에 앉아 귀를 기울이면 삼성각 뒤뜰을 빼곡하게 채운 대나무 숲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오롯이 바람결에 제 몸을 맡긴 대나무 떨림에 위로를 얻는다.

### 임진왜란을 다시 담다 국립진주박물관

진주성을 둘러보다 보면 주변 풍경과 조화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날 수 있다. 계획 단계부터 진주성의 경관을 파괴하지 않는 세심한 설계로 주목받았던 국립진주박물관이다. 개관 당시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출발했지만, 1998년부터 임진왜란을 전시 중심 주제로 삼고 ‘임진왜란 특성화 박물관’으로 거듭났다. 임진왜란과 경상남도 서부지역 문화유산을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전시와 자료들로 명성이 높다.

조선시대 전통 화약 무기의 발달사와 전쟁사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한 ‘화력조선’ 시리즈 역시 누적 조회 수 1,000만 회를 넘기며 국립진주박물관을 화제의 중심에 올렸다. 박물관의 전문성 높은 전시·연구 결과물을 대중의 기호에 맞게 쉽고 재미있는 영상물로 재탄생시켰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사르후 전투’와 ‘정주성 전투’를 단편 영화로 제작한 시즌 3과 4가 큰 울림을 남겼다. 박물관의 콘텐츠로서는 의외의 형식이지만, 박물관이기에 할 수 있는 치밀한 고증 덕분이었다. 전투에 참여한 이름 모를 군인들에 대한 추모가 더욱 절절하게 대중의 가슴에 가닿았던 것이다.

어느덧 진주성과 남강 일대에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축석문 옆, 달을 형상화한 조형물에 불이 켜진다. 박물관 곁을 지키고 있는 국보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에도 달빛이 쏟아진다. 기록된 역사와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린 역사까지 모두 목도했던 남강이 성을 아우르며 흘러간다. 교교히 밝은 달밤이다.





## 박물관의 산뜻한 여름 온도

A Museum Visit for Cooler Summer



QR코드에 접속하면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의 여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름의 시선을 따라 걷는 박물관 길.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거울못에 반짝거리는 윤슬,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새,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생기를 더한다.

탁 트인 남산의 풍경에 터지는 감탄과 환희, 그 시원한 숨결.  
싱싱하고 힘찬 기운을 가진 모두의 발걸음이 박물관의 여름을 가득 채운다.





**살아난 호자**  
홍주완 어린이, 초3  
국립부여박물관  
사비 숨씨상

## 동심이 펼쳐낸 문화유산

2024년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상반기 수상작

전국 국립박물관에서는 어린이에게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심어주고자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는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이 대회를 열어 112편의 입상작을 냈다. 기발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듬뿍 담긴 어린 화백들의 작품을 만나본다.

\*『박물관신문』 7월호와 12월호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문화유산의 모습을 소개한다.



**원통 모양 그릇받침**  
배현서 어린이, 초2  
국립진주박물관  
보람상



**지붕 위에 세우는 기와 치미**  
정서이 어린이, 초3  
국립부여박물관  
사비 버금상



**요술항아리**  
공호성 어린이, 초2  
국립김해박물관  
가야버금상



**금동관**  
김채원 어린이, 초4  
국립김해박물관  
가야꿈나무상



**무관복의 가슴과 등에 붙인 장식**  
정소울 어린이, 초5  
국립진주박물관  
으뜸상

### 2024년 하반기 국립박물관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일정

국립전주박물관 '제32회 어린이 국가유산 그리기 대회'	국립광주박물관 '제35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국립대구박물관 '제24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잔치'
일시: 2024.6.24.(월) 14:00~17:00	일시: 2024.8.12.(월) 14:00~17:00	일시: 2024.8.12.(월) 14:00~17:00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전시실	장소: 국립광주박물관 전시실	장소: 국립대구박물관 전시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립박물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젊음과 북미 원주민이 박물관에서 만나면?

국립중앙박물관×쿠도스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2030 홍보 전략

**Q**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정현** 쿠도스는 학기마다 기관이나 기업 두 곳 이상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학회 회원들이 선호하는 곳에 먼저 협업을 제안하죠. 이번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연락을 드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전시 담당 부서에서 받아주셨고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의 홍보 마케팅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Q** 관람객이자 전략가로서 이번 전시를 접한 첫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지은** 저는 MBTI의 F들을 많이 울릴 전시라고 생각했어요. 전시 공간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지만, 전시장 곳곳에 쓰인 북미 원주민의 잠언을 보며 어떤 위로 받는 듯했어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밤하늘 속 티피 텐트와 양화는 님의 잠언 낭독이었는데요. 북미 원주민의 깊고 따뜻한 세계관에 푹 빠져 들 수 있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서현빈** 전시품을 보면서 작업했기 때문에 '완성된 전시를 보면 감흥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막상 전시장을 찾았더니, 흥미로운 체험 거리가 공간과 조화롭게 어울려 여운이 남더라고요. 저 역시 티피 텐트를 바라보면서 양희은 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좋았습니다.

**유성현** 저는 2030 세대에게 특별 전시를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전시 관람 후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이미지를 바꾸거나 밈(Meme)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쓰지 않더라도, 즐길 수 있는 전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티피 텐트 설치 공간과 추장 머리 장식이 전시된 공간에서는 북미 원주민의 세계관에 들어온 듯했어요.

**이정현** 전시품 자체도 웅장하고 미디어아트도 함께 전시되어 볼거리가 많지만, 전시장 벽면마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북미 원주민의 잠언을 오래 기억하고 싶더라고요. 전시장에서 나이들 불문하고 작품 사진이 아닌 벽면의 잠언 문구를 찍어 담아가는 관람객들의 모습이 새로웠어요. 울여름이 특히 더워 환경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었는데, 전시장 마지막 문구인 '대지를 잘 보살펴라'를 읽으며 한 번 더 자연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청년세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노력해 온 국립중앙박물관은 '대박쌈박! 국중박'(2022), '국중박 갓생살기'(2023) 프로젝트로 문화유산의 콘텐츠를 청년세대가 가장 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의 홍보를 위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듣고자 쿠도스(KUDOS, 고려대학교 실전마케팅학회)와 함께 한다. 쿠도스의 패기 넘치는 2030 홍보 마케팅 전략을 들어 본다.

**Q** 홍보 전략을 세우면서 만나본 2030 세대의 반응은 어땠나요?

**서현빈**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2030 세대가 미술관과 박물관을 달리 대한다는 것이었어요. '박물관'에 대해서는 어떤 거리감을 느끼더라고요. 전시 주제 면에서도 아무래도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유성현** 맞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면 대부분 '교양', '딱딱함' 등의 반응이 먼저 나오더군요. 게다가 놀랍게도, 북미 원주민에 대해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북미 원주민 관련 전시에 관심이 없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 전시가 북미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국내 첫 전시이기도 하니 그런 반응들도 당연하달까요?

**이지은** 북미 원주민이라는 주제, 아니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명칭인 '인디언'이라고 해도 섣뚱 '보고 싶은 전시다!'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어렵다고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한편론,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이 점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홍보 전략에 적극 활용한다면 2030 세대 관람객 유입에 성공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정현** '꽃츠나' '사유의 방'과 같은 콘텐츠 덕분에 박물관 자체에 대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지만, 이번 전시와 같은 주제는 새로운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죠. 전시명에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듯, 우리가 알던 '인디언'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오해와 편견이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게 이번 특별전이 갖는 의의일 테고, 거기에 2030 세대가 막힘없이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Q** 결국, 박물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겠네요.

**서현빈**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박물관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에 가장 좋은 곳이죠. 2030 세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박물관이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느낄만한 요소들을 짚어 주고 끌어내서 서로의 거리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유성현** 박물관이 교양 있고 무거운 공간보다는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되면 좋겠습니다. 2030 세대가 관심을 갖고 즐길 만한 현장 체험이나 이벤트를 자주 기획했으면 하고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를 기반으



로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트렌드나 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박물관은 재미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현** 2030 세대가 전시회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해요. 이번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역시, 역사를 '배우는' 전시가 아니라 재미있고 다양한 체험으로 '즐기는' 전시라는 점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30 세대의 관심사와 생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요즘 2030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재미와 경험을 중요하게 여겨요. 박물관이 이런 특성을 반영해 전시에 흥미로운 체험 요소를 포함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와 SNS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이나 인터랙티브 웹사이트로 쉽게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유도해야겠죠.

**이지은**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포인트는 '인스타그램머블(Instagramable)'이에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쁘게 사진 찍을 장소가 있고, 여유를 즐길 공간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체험 요소가 있다면 2030 세대의 방문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재생산한 콘텐츠로 높은 확산력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 2030 세대가 국립중앙박물관을 생각했을 때 떠올릴 바라는 키워드를 잡고 그 방향성에 맞춰 흥미로운 콘텐츠를 지속해서 전달한다면 '박물관은 이럴 때 방문하는 공간'으로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 이번 특별전의 홍보 전략 중 가장 독특하거나 꼭 진행하길 바라는 이벤트가 있나요?

**서현빈** '북미 원주민 생일 카페'입니다. '생일 카페'라고 하면 연예인을 떠올리지만, 최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아인슈타인 생일 카페' 등 다양한 인물을 주제로 하는 생일 카페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마침 전시 기간에 '국제 원주민의 날'(8월 9일)이 있어요. 그즈음 '북미 원주민 생일 카페'를 연다면 2030 세대에게 한층 친숙한 이미지로 북미 원주민을 다가가게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유성현** 인스타그램의 기업 홍보 채널 '무물상담소', X(구 트위터)의 제품 후기 계정 '살림하는 도로로'를 아시나요? 기업 홍보가 아닌 인생 상담 댓글 이벤트, 밈을 활용한 재미있는 제품 후기가 2030 세대에게 높은 화제성과 홍보 효과를 낳았죠. 이런 사례와 전략을 이번 특별전에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엔 이미 인스타그램에만 16만 팔로어가 있고, 북미 원주민은 요즘 유행하는 밈들의 신선한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정현** '관람평을 그려봐!'입니다. 특별전의 주요 전시품인 티피 텐트에 그림을 그렸던 북미 원주민의 일원이 되어 관람 후기를 그림으로 기록하는 체험이죠. 그림이라는 간편한 행위로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관람객 중 매달 '내가 원주민이 될 상' 등 센스 있는 수상자를 선정하면 콘텐츠 재생산 및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지은** 전시를 감상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북미 원주민의 잠언을 종이에 옮겨 적는 '지금 내 마음을 묻다'입니다. 이 전략이 특별한 이유는 종이 안에 씨앗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씨드 페이퍼(Seed Paper)'를 전시실 밖에 있는 '마음 화단'에 심는 방법으로 방명록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죠. 관람객의 마음을 '묻고', 마음이 담긴 씨앗을 땅에 '묻는' 이중적 의미가 마음에 듭니다.

**Q** 2030 세대로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서현빈** 국립중앙박물관의 장점이 특히 저희 또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웠어요. 으뭇흠 카페와 같은 전시 이외의 공간을 하나로 묶으면 그 자체로 2030 세대가 꼭 둘러보고 싶어 할 복합문화공간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잘 찾아내 주세요. 좋은 정보 제공은 좋은 홍보 전략이기도 하니까요.

**유성현** 2030 세대가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예쁜 공간들을 더 많이 소개하고, 새롭고 재미있는 오프라인 콘텐츠를 자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은**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홍보 콘텐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2030 세대가 좋아하는 콘텐츠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 활용해 박물관에서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여유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면 좋겠어요. 2030 세대가 별종처럼 오해받기도 하지만 성취를 향한 집념이 더 강해서 자신에게 엄격해요. 어려모로 지쳐있는 세대죠.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과 같은 전시가 지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지, 몰라서 놓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2030 홍보 전략'의 출발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정리. 편집팀



# 국외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유산, 그 원형을 찾다

미국 클리블랜드박물관Cleveland Museum of Art 의 <호렵도 虎獵圖 8폭병풍> 보존처리

국외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유산 가운데는 19~20세기 고국을 떠난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전시가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거나 원형을 잃어버릴 정도로 보존처리가 시급한 소장품들이 많다. 국외박물관은 이러한 손상을 막고 소장품을 전시에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존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호렵도 8폭병풍  
19세기 후반  
면에 먹, 안료(線本彩色)  
전체 각폭 185.9×43.0cm  
화면 각폭 142.5×39.6cm(1폭, 8폭), 43.0cm(2~7폭)

호렵도 병풍 보존처리 완료 예상도

## 국외소재 한국 문화유산, 한국에서 되살아나다

국외박물관에서는 한국 전통 회화작품의 보존처리에 고민이 크다. 그 이유는 한국 고유의 재료와 전통 장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의 보존처리사가 한국 전통 회화작품을 복원할 시 원형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회화는 한국의 전통 재료와 장황기법으로 복원되어야 온전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으로 보존처리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외박물관 한국국실 지원 사업으로 국외소재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

관 등 8개 박물관이 소장한 한국 회화 44점의 원형을 복원하였다.

## 클리블랜드박물관 소장 호렵도 병풍, 원형을 찾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는 현재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으로 미국 클리블랜드박물관 소장 <호렵도 虎獵圖 8폭

병풍>의 보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호렵도는 겨울 들뜰에서 무리 지어 사냥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현재 전하는 호렵도는 연폭 병풍으로 19세기 작품이 대부분이다. 클리블랜드박물관 소장 <호렵도> 병풍도 19세기에 제작되었으며 인물과 말의 채색이 진하고 곳곳에 금을 사용하는 등 장식성이 높은 작품이다.

현재 호렵도 병풍은 병풍틀이 뒤틀리고 연결 부분이 찢어져 분리되는 등의 손상으로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태였다. 보존처리의 첫 시작은 병풍틀과 그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작업으로 이때 제작 당시의 원형과 수리 흔적을 찾는 성과를 거두었다. 과거 수리 시 병풍의 규격이 확장되고 전통 장황이 변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병풍 원형 위에 직물 및 나무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리가 이루어져 원형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전통 직물 문양인 도류불수보문 桃榴佛手寶紋(복숭아와 석류, 불수와 여러 보물 무늬)이 있는 비단을 쪽색으로 염색해 상·하회장으로 사용한 것이다. 특히 자주색 비단 좌우에 흰색과 적색의 줄을 덧붙여 병풍 띠를 둘렀으며 흑색 삼베를 병풍 1면과 8면의 뒷면에 부착한 것으로 모두 전통적인 장황의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전통 장황 자색 띠



전통 장황 흑색 삼베



전통무늬 장황 비단



과거 수리 시 병풍 길이 확장

이런 원형의 발견은 보존처리에 있어서 명확한 목표점을 알려주는 길잡이를 찾는 것과도 같다. 앞으로의 보존처리는 발견된 자료를 고증하고 이를 토대로 제작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전통 무늬 장황 비단을 고증하여 복원하고 이를 천연 염료로 염색하여 보존처리에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병풍의 하단에 수리 당시 30cm 길이의 나무 부재가 더해져 병풍의 길이가 확장된 부분을 우리나라 조선시대 가옥 규모에 알맞은 전통 병풍 크기로 복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자색 병풍 띠를 제작하고 흑색 삼베를 부착하여 완성하는 것이다.

<호렵도 병풍>은 2024년 12월 보존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며 소장처로 돌아가 한국을 알리는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유산 과학센터’

국립중앙박물관은 2025년 ‘문화유산 과학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다. ‘문화유산 과학센터’는 국·내외 박물관을 대상으로 상시 컨설팅과 보존처리 등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국외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원형 복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직접적인 보존처리 수행을 확대하고 나아가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현지에서 보존처리를 진행할 경우 전통 복원 재료의 수급을 도와 복원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 과학센터’는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의 위상을 제고하고 문화를 창출하는 종합문화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장황(粧潢)이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쓴 종이나 비단 등을 족자, 병풍, 두루마리, 책, 첩 등의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감상을 편리하게 하고 오랫동안 보존 관리를 용이하게 제작하는 것이다.

글. 장연희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학예연구사



# 손창근 선생님, 편히 쉬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국보 <세한도歲寒圖>와 보물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손창근孫昌根(1929-2024) 선생이 2024년 6월 11일 영면에 임하셨다. 사흘이 지나도록 박물관 직원 그 누구도 선생의 부음을 듣지 못했다. 부고를 알리지 말라는 고인의 당부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를 마친 뒤에야 소식이 전해졌다. “박물관에 알리면 바쁜 분들께 폐를 끼치니 절대 연락하지 말라”는 그분의 뜻을 차남 손성규 교수가 전해주었다. 그런 분이셨다. 그분은.

아무 대가 없이 가진 것을 나눈 그분은 평소 본인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2012년 4월 경기도 용인과 안성 지역 임야 662헥타르(200만 평, 남산의 두 배 면적)를 산림청에 기증할 때도 그러했다. 기부 조건으로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와 “이 숲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하게 잘 관리되기 바란다”를 내세우셨다. 다들 하는 회갑연이나 칠순잔치도 마다했던 그분은 88세 미수연을 기념해 2017년 50억 상당의 건물과 함께 1억 원을 KAIST에 기부했다. 90세를 맞이한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 <불이선란도>와 <잔서완석루> 등 202건 304점을 기증했다.

그는 큰 재산과 보물급 미술품을 보유할 정도

김정희필 예서 잔서완석루  
조선  
가로 177.4cm, 세로 47cm  
손세기·손창근 기증  
중 9979

로 자산가였지만, 평생 근검절약하셨다. 부인 김연순金演珣(1930년생) 여사가 말씀하시길, 그는 바닥에 떨어진 고무줄 한 개도 식당 냅킨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한다. 김연순 여사는 피아노와 자가용이 있을 정도로 부유했던 개성 출신으로 한국 전쟁으로 부산에서 피란 생활 중 손창근 선생과 만나 1954년 결혼했다. 손 선생의 군복무로 대구에서 신희 생활을 했는데, 대각선으로 누워야 제대로 잘 수 있는 작은 집에서 살았고, 빗물을 받아 군복을 세탁했다며 어려웠던 그 시절을 회상했다. 서울로 돌아와 살 때도 늘 생활비가 빠듯했다고 한다.

그는 부친 손세기孫世基(1903-1983) 선생이 모은 고서화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1960년대 외국인 상사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수집했다. 수집 과정이 기억에 남는 소장품으로 김정희 예서棘書 대표작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를 꼽았다. 부친이 꼭 사라고 추천하셨는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부족해 증권을 팔아 그 작품을 샀을 정도로 애를 많이 썼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고서화한 점 한 점 소장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

였을지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었다.

2020년 <세한도> 기증을 마지막으로 그의 소장품 모두 국가의 것이 되었다. 2남 1녀 자식들에게 한 점도 물려주지 않고 자식들 집에 있던 그림을 회수해 기증했다.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2018년 기증식 전날 그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가장 아끼던 <세한도>를 더 오래 간직하고 싶었지만, 부인 김 여사의 권유로 기증을 결심했다.

2020년 <세한도>를 기증했을 때 코로나가 한창이라 기증식을 개최할 수 없었다. 그가 문화훈장 중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받고 2020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 방문했을 때와 2021년 4월 <세한-한겨울에도 변치 않는 푸르름> 특별전을 관람하러 박물관에 왔을 때 촬영한 사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그의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언론에 공개된 사진들은 2018년 11월 기증식 때 촬영한 것이다. 중요한 문화유산 기증 소식을 널리 알리고자 그분께 기증식 참석을 조심스럽게 청했다. 평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으나 세간에 ‘얼굴 없는 기증자’로 불린 것이 싫으셨는지, “내가 왜 얼굴이 없냐”며 기증식에 얼굴을 드러내셨다. 곳곳하고 흐트러짐 없는 그분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 글을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고, 툭툭 농담도 던지고, 환하게 웃는 그분의 또 다른 면모가 잘 드러난 사진을 골랐다. 존경할 만한 멋진 분임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2018년 8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  
기증원에 서명하시고  
홀가분하게 웃으시는 모습

국립중앙박물관과 손창근 선생의 인연은 오래 되었다. 동향인이자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최순우崔淳雨(1916-1984)·황수영黃壽永(1918-2011) 선생과 친분이 깊었다. 2006년 소장품을 박물관에 기탁하면서 박물관과 그분의 관계가 깊어졌다. 이수미 전 학예연구실장이 미술부에 근무할 때 그의 소장품을 전시하고는 종종 보러 오시라고 연락드렸다.

2018년 8월 점심 식사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관 순환 근무가 화제가 되었다. 이수미 전 학예연구실장(당시 미술부장)이 국립전주박물관에 근무하다가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진보 발령받았던 옛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 그분이 “나 죽을 때까지 만 데 가지마”라고 말씀하셔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손창근 선생이 세상을 떠나신 2024년 6월, 이수미 실장이 28년 10개월의 박물관 생활을 마쳤다. 선생님 당부가 이루어진 것일까.

별세 소식을 듣고 그분과 나누었던 문자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다. 찾아뵙는다고 또는 봄이 왔다고, 생신이어서, 새해가 왔다고 인사드렸다. 이따금 꽃바구니를 보내드렸다. 선생님은 “보고 싶다”고, “잊지 않고 생각해주어 고맙다”고 하셨다. 그런데 선생님 가시는 길에 올리고 싶었던 흰 국화 한 송이를 그분은 받지 않으셨다. 그 시간에 박물관 일 더 많이 하라는 뜻이었을까? 그분 뜻에 박물관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자 한다. “선생님, 주신 큰 선물 박물관에서 잘 보존하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 선생님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기증식 리셉션.  
부인 김연순 여사와 함께  
축배들 들고 있는 모습

글. 이수경 국립춘천박물관장



## 『박물관 보존과학』 31집 발간

다양한 보존과학 분야의 논문 4편과 자료 1편 수록

『박물관 보존과학』은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분석, 박물관 환경 등을 다루는 보존과학 분야 전문학술지로 매년 2회(5월, 11월) 발간되고 있다.

이번 31집에는 논문 4편과 자료 1편이 수록되었다. 조선 1684년 제작된 부석사 괘불 바탕 직물의 제작 방법과 채색 안료를 분석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부석사 괘불>의 바탕 직물과 채색 특성」, 출토 유리구슬 43점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고 화학 조성을 측정한 「고령 지산동 73~74호분 출토 유리구슬의 제작 기법과 화학 조성」에서는 과학적 조사 분석으로 당대의 제작 방법과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자기 포장에 3D 기술을 접목한 「TPU 소재 3D 출력물을 이용한 도자기 맞춤형 포장 기술 개발 및 적용성 연구」, 문화유산의 이미지와 질감의 전이로 새로운 이미지를 추출하는 「문화유산 이미지의 질감과 색상 스타일 전이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연구」에서는 보존과학 분야에 새로운 연구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의 정밀 진단 및 보존처리 과정을 정리하여 자료로 수록하였다.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록한 논문들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학술행사·출판 → 정기간행물 → 박물관 보존과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국립경주박물관, ‘통일신라 수구다라니’ 연구 성과 공개 학술 심포지엄 개최 및 ‘수구다라니’ 특별 공개



국립경주박물관은 지난 6월 21일 통일신라 다라니 신앙과 수구다라니를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6월 30일까지 통일신라 수구다라니와 금동경합을 특별 공개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학술조사연구자료집에 수록한 수구다라니와 다라니를 담았던 금동경합의 기초 조사 과정과 내용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분야별 심화 연구로 새롭게 밝혀낸 성과를 살펴보았다.

신라의 다라니 신앙과 사리장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일신라 수구다라니의 내용 및 특징을 다룬 다채로운 주제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

발표는 ▲신라의 사리장엄과 다라니(한정호, 동국대학교) ▲신라의 다라니 신앙과 한자 수구다라니의 의미(육나영, 홍익대학교) ▲범자 수구다라니 구조 및 내용 분석(한재희, 동국대학교) ▲수구족독다라니의 금강신상, 그리고 금동방형경합(임영애, 동국대학교) ▲수구다라니의 보존처리와 복원(장연희, 국립중앙박물관) ▲금동경합의 제작 방법과 형식(신명희, 국립경주박물관) 여섯 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이어 ▲남동신 교수(서울대학교)의 사회로 여섯 명의 발표자와 토론자인 김연미(이화여자대학교), 김수연(이화여자대학교), 강형철(경희대학교), 박아연(국립경주박물관), 박미선(국립중앙박물관), 채해정(국립경주박물관)이 함께 열띤 종합토론도 펼쳤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과 특별공개는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장 입구 보안검색대 재개

문화유산과 관람객 안전 위한 조치, 불편해소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유산과 관람객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지난 6월 11일부터 상설전시장 입구에 보안검색대를 설치했다. 지난 2022년 5월 관람객의 원활한 입장을 위해 보안검색대를 철거한 이후 24개월 만이다. 박물관은 보안 검색으로 전시장 입장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품보관소를 기존보다 1.5배 늘린 460여 개로 추가 설치했으며, 가방을 소지하지 않은 관람객은 문형 금속검색대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보안검색대 설치는 최근 박물관을 포함한 국내 주요 시설에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이 신고되고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되는 등 문화유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로 마련되었다.

## 국립전주박물관, 전북특별자치도 교장 초청 연수

‘더 특별한 전북교육, 미래 향한 박물관’ 진행



국립전주박물관은 6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장 초청 자율 연수 프로그램 ‘더 특별한 전북교육, 미래 향한 박물관’을 진행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교육 자치권이 확대되면서 박물관과 학교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특별전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 관람을 시작으로 국립전주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국보순회전이 열리고 있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순회전의 취지와 의미를 공유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교장 초청 연수 이외에 방학 동안 교사 직무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문의·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창립 20주년 맞이 기념 상품 출시

‘사유의 방’ 팝업카드 등 다채로운 문화유산 활용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6월 18일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적인 소장품과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을 출시했다.

기념 상품은 마그넷, 엽서, 키링, 스티커 등 10품목 62종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의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팝업카드, 인상 깊었던 문화유산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스티커 북 등 신규 개발 상품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출시 10년 만에 새롭게 디자인한 유선 공책과 스프링 수첩도 재출시됐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온라인 뮤지엄숍과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모집

국립중앙박물관이 학생단체 관람객에게 전시해설 및 관람 예절 교육을 실시할 청년멘토를 모집합니다.

1. 지원 자격

신청 대상

청년멘토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졸업(예정)자 (만 30세 이하)

신청 조건

사전교육 및 전시해설 테스트 필수 이수

신청 기간

2024.7.15.(월) 09:00~7.31.(수) 18:00

신청 방법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소식참여-청년멘토' 메뉴에서 신청  
\*청년멘토 활동 신청서 1부 제출('청년멘토' 메뉴에서 다운로드)

결과 발표

2024.8.2.(금) 16:00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 서류심사 결과 공지

2. 활동 사항

활동 내용

초·중·고 학생단체 대상 전시해설 및 관람 예절 교육

활동기간

2024.9.9.(월)~12.20.(금) (15주)  
※ 10주 이상 활동 (주 1회 지정된 요일 10:00~17:00, 주말·공휴일 활동 없음)  
\* 학생단체 관람객이 많은 화·수·목에 지원 협조 (월, 금요일은 활동 인원수 제한)

사전교육

기본교육 8.6.(화)~8.8.(목) 13:00~17:00(3일간, 간식 제공)

일정

심화교육 8.12.(월)~8.16.(금) 중 1일 택일(2개 코스 이수)  
\*15일 제외

전시해설 8.26.(월)~8.30.(금) 중 1일(1개 코스 문화유산 5점 내외 해설) 테스트  
※ 테스트 시 반드시 본인 확인 및 재학(졸업) 증명 서류 제출 후 참가 가능

3. 혜택

• 박물관 주관 기획전 무료 관람, 문화유적 답사, 우수 활동자 포상

• 청년멘토 활동 시 중식 제공 및 참가 조건 충족 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활동이 우수한 청년멘토를 대상으로 '우수 청년멘토 지정서' 수여

• 청년멘토 활동자 중식비(1일 10,000원) 제공

※ 문의: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센터 톨 02-2077-9680, 02-2077-9681

국립박물관 인사동정(5.16.~6.15.)					
전입	2024-06-15	행정주사	서유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승진	2024-05-30	학예연구사	양희정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 학예연구관
	2024-05-30	학예연구사	선유이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 학예연구관
전보	2024-05-30	학예연구관	양희정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
	2024-05-30	학예연구관	선유이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2024-06-03	학예연구사	백승미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휴직	2024-05-20~2024-07-03	행정주사	김효진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휴직
	2024-06-01~2024-12-31	공업서기	이승진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	→ 휴직 연장
	2024-06-10~2024-12-29	행정주사보	박인숙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휴직
복직	2024-05-31	학예연구사	유새롬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 복직
	2024-06-01	방호서기	김영일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복직
	2024-06-03	학예연구사	서인혁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팀	→ 복직
파견	2024-05-17	학예연구관	김영민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 국가유산청
	2024-05-17	학예연구관	임소연	국가유산청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7 JULY	8 AUGUST	9 SEPTEMBER	10 OCTOBER	11 NOVEMBER
중앙	〈심장생, 열 가지 이야기〉   2023.5.2.~2024.8.18.				
	고대 그리스·로마실   2023.6.15.~2027.5.30.				
	〈옛 그림 속 꽃과 나비〉   2024.4.15.~7.28.				
	〈진천 영수사 폐불〉   2024.5.1.~10.13.				
	〈우리개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2024.6.18.~10.9.				
	〈三鰐三龜·동아시아의 칠기〉   2024.7.10.~9.22.				
경주	영남권역 수장고(개방형 수장고)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개교 70주년 특별전 〈함께 지킨 오랜 약속〉〉   2024.7.16.~9.22.				
광주	〈조물조를 꿈에 빛는 도자기〉				
	〈도자기, 종류를 품다〉   2024.6.21.~9.22.				
전주	〈서예, 일상에서 예술로〉   2024.6.27.~2025.2.28.   인천공형박물관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   2024.5.3.~8.18.				
	〈한양기와 춘향전〉   2024.10.1.~2025.1.8.				
대구	개관 30주년 특별전 〈한국의 신발, 발과 산〉   2024.5.14.~9.22.				
	〈고 이연희 회장기증 대구 경복의 국보와 보물〉   2024.7.9.~2025.6.29.				
부여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 〈백제금동대향로〉, 디지털 실터 〈백제를 실감하다〉				
	아와전시장 개편   2024.5.~				
광주	충청권역 수장고(개방형 수장고)				
	〈성상의 동물사전-백제의 용 <sup>龍</sup> 〉   2024.9.10.~2025.2.9.				
진주	〈임진왜란〉, 〈경남역사문화〉				
	〈경상도 사기장 이야기(가제)〉   2024.9.30.~2025.2.23.				
청주	〈꼬마 친구들의 박물관 운동회〉, 〈문화유산 속 금속 이야기〉, 〈우리집에 놀러올래?〉				
	〈기록, Map of You〉   2024.6.25.~11.3.				
김해	〈세계유산 가야〉   2024.1.23. ~				
	〈세계유산 백제, 세계유산 가야〉   2024.5.2.~7.28.				
제주	고이건희 회장기증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   2024.6.4.~8.18.				
춘천	〈한송사 터 석조보살〉   2023.5.25. ~				
	〈이상향으로의 초대, 금강산과 관동광경〉   2023.12.5.~				
	특별공개 〈다시 찾은 신라의 빛: 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   2024.5.14.~7.28.				

나주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2021.12.21.~2024.12.31.	
	〈국립나주박물관 다시, 열다〉   2023.12.15.~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와 토유장식 토기〉   2024.4.23.~7.28.	
익산	〈도솔이와 함께 떠나는 미륵사 시간탐험〉   2022.1.11.~	
	신기술훈합콘텐츠 〈미륵사지 기록집〉   2022.1.11.~	

특별전    상설전    어린이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일시	장소
공주	유 퀴즈? 관찰하GO생각하GO	1.12.(금)~12.31.(화)	상설전시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무령왕릉	7월 매주 화·목	온라인
	무령왕릉 고구상자 대여 '무령왕이 되어보자'	4월~12월	초등학교
	제6기 공주박물관대학 - 공주 <sup>City</sup> 에서 공주 <sup>Treasures</sup> 를 만나다	7.3.(수), 7.17.(수), 7.31.(수)	강당
	모두 같이 즐겨요	7.2.(화), 7.26.(금)	전시실, 세미나실
진주	별잔이와 함께 하는 박물관 탐험	7월 매주 화·목 10:30~11:10	교육실, 전시실
	이 탑은 어디서 왔을까?	7월 매주 수·금 10:00~10:40	교육실, 야외 전시실
	조선 수군 체험	7월 매주 화~일 10:00~17:00	어린이 임진왜란 체험실
	제13기 진주어린이박물관학교	3.23.~7.20. 지정 토요일 09:30~11:30	교육실
	취약 계층 초청 역사문화 체험교실	7월 중 1회	교육실, 전시실
청주	석신로드(AR콘텐츠)	상시	야외정원
	창조년 진로탐색교육	7.13.(토), 14.(월), 27.(토) 10:00~17:00	특별전시실
	제22기 박물관 연구과정	7.18.(목)	강당
	제16기 어린이 토요박물관학교	7.20.(토)	세미나실
	큐레이터와의 대화	7.25.(목)	상설전시실
김해	가야간국설화 인형극 〈일에서 태어난 수로왕〉	7.5.(금), 7.19.(금) 10:30~11:30	가야누리 인형극장
	문화가 있는 날 〈큐레이터와의 대화〉	7.31.(수) 16:00~17:00	세미나실
	제21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전시	7.2.(화)~9.18.(수) 10:30~18:00	가야누리
	박물관 탐구생활	7월 매주 수·목·금	교육실
	오랑가뎐 박물관	7월 중	각급 학교
제주	제3기 제주어린이박물관학교	7.20.~7.27. 매주 토 10:00~12:00	교육실, 전시실
	[특별전연계] 큐레이터와의 대화	7.10.(수), 7.24.(수) 16:30~17:00	기획전시실
	[특별전연계] 호시절	7.4.(목)~7.25.(목)	교육실
	[관람객] 체험공간 '문화놀이터'	연중 상시	문화놀이터
	[초등 단계] '새싹들의 박물관 나들이'	연중 예약제, 매주 화~목 10:00	숙속배움터
춘천	[초등5~6년] 제17기 어린이박물관학교	7.13.(토), 7.27.(토) 9:30	숙속배움터
	큐레이터와 함께 문화유산 산책 '춘비 명품 톨아보기'	7.4.(목), 7.11.(목), 7.18.(목) 14:00	강당
	[유아] 반짝반짝 공동관 이야기	7월 매주 수 10:00~11:20	체험학습실, 전시실
	[초등/청소년] 박물관으로 떠나는 역사여행	7월 매주 화·목·금 10:00~11:30	체험학습실, 전시실
	함께 가요, 박물관 나들이 / 박물관에서 소풍을!	7월 매주 화~금 14:00~15:30	체험학습실, 전시실
나주	[가족]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7월 매주 토·일 11:00 / 14:00 / 16:00	어린이박물관
	[성인] 박물관에서 배우는 한지공예 판공루트	7월 매주 목 10:00 / 14:00	행복학습센터
	제2기 익산어린이박물관학교	7.13.(토), 7.27.(토) 9:30~11:00	강당 및 전시실 등
	박물관 속 고도 익산 여행	7.6.(토)~7.28.(일) 주말 및 공휴일 10:00~17:00	본관
	도솔이와 함께 떠나는 미륵사 시간탐험	7.6.(토)~7.27.(토) 14:00~16:00	어린이박물관



올여름은 박물관에서 시원하게 보내세요!

7월의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박물관문화향연 공연이 찾아온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일월당과 강은일 해금플러스의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싱어송라이터 박소은이 출연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선보일 뿐 아니라 <금강산과 관동팔경> 전시도 소개한다.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쉼 곳을 찾고 있다면, 박물관에서 전시도 보고 공연도 즐기며 힐링해 보자.



국립중앙박물관 × 일월당

일시: 2024.7.20.(토) 오후 3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으뜸홀  
일월당은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며 대금 연주자 이주향을 중심으로 하는 국악 프로젝트 크루다.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독특하고 신선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 강은일 해금플러스

일시: 2024.7.27.(토) 오후 3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으뜸홀  
강은일은 전통음악 위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해금을 통한 크로스오버 음악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연주자이다. 그녀의 소리는 항상 대중과의 교감을 꾀하고 있으며, 그녀의 연주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다.



국립춘천박물관 × 박소은

일시: 2024.7.27.(토) 오후 3시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야외  
슈퍼스타K7에 출연하여 싱어송라이터로서 주목받은 박소은이 그만의 감성으로 무대를 채운다. 박소은은 2016년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 입상하여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으며,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시도들이 엮보이는 사운드로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이고 있다.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금강산과 관동팔경> 전시를 소개한다. 불교와 도교의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표현한 전시품들을 만날 수 있다.



2024년 7월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82회	18:00~18:30	19:00~19:30	
기증관	조각·공예관	기획전시실	어린이박물관
토기, 인류 최초의 화학적 발명품 기증 III 실(206호) 세계문화부장 양성혁	청자 비색과 인종장릉 청자실(303호) 어린이박물관과 김현정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2) 기획전시실 전시과 김혁중	어린이 박물관 체험 전시물 '속을 보는 눈' 어린이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과 이민수
783회	18:00~18:30	19:00~19:30	
기증관	특별전시실	중·근세관	중·근세관
소장품 수집 기증 I 실(208호) 유물관리부 김세원	특별전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칠기>(1) 특별전시실(121호) 세계문화부 오세은	삼강행실도, 누구를 위한 책임가 조선II실(118호) 고고역사부 서윤희	온라인 콘텐츠 '마음복원소' 함께 관람하기: 치유하는 박물관 대한제국실(120호) 문화교류홍보과 임채현
784회	18:00~18:30	19:00~19:30	
선사·고대관	특별전시실	기획전시실	세계문화관
백제 산수문전 백제실(106호) 보존과학부 박학수	특별전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칠기>(2) 특별전시실(121호) 세계문화부 전인지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3) 기획전시실 전시과 이진민	헤이안 귀족 취향의 불상 일본실(310호) 전시과 류승진
785회	18:00~18:30	19:00~19:30	
선사·고대관	특별전시실	서화관	어린이박물관
금동관과 은제관구미개로 본 백제의 중앙과 지방 백제실(106호) 고고역사부 최경환	특별전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칠기>(3) 특별전시실(121호) 세계문화부 오세은	나폴나폴 나비 그림과 남계우 서화II실(202~3호) 미술부 명세라	어린이박물관 콘텐츠 '시간 여행 안내소' 어린이박물관(입구) 어린이박물관과 정민영
786회	18:00~18:30	19:00~19:30	
선사·고대관	특별전시실	기획전시실	기증관
백제사람들의 흙 다루는 기술 백제실(106호) 미술부 김지호	특별전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칠기>(4) 특별전시실(121호) 세계문화부 전인지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4) 기획전시실 전시과 김혁중	책으로 만나는 박물관 기증 I 실(208호) 디자인팀 서인혁





#### 표지 이야기

여러분은 ‘인디언’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인디언은 1492년 콜럼버스가 북미에서 처음 만난 원주민을 인도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붙인 이름으로, 오랫동안 여러 원주민 부족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삶과 문화를 ‘인디언’이라는 단어 하나로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미국 땅에만 570개가 넘는 다양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서는 그들을 ‘북미 원주민’이라고 부릅니다. 예로부터 북미 땅의 주민이었고,

사라진 과거의 존재가 아닌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북미 원주민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볼 수 있는 공예, 회화, 사진 등 151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을 새롭게 알아 가면서, 나와 다른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기 바랍니다.